

베트남의 제1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 채택의 정책적 함의

김가람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자료 수집 및 검토 과정에서 도움을 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과정의 민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I. 서론
- II. 국외 초·중·고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의의
- III. 베트남의 한국어 채택 배경과 과정
- IV. 베트남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V. 결론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초·중·고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된 한국어의 교육 현황을 검토하고, 채택 배경과 채택 과정을 탐구하여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39개국, 1,669개 초·중·고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돼 159,864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는 2019년보다 9개국, 14,555명이 늘어난 것으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세종학당에서 이루어지던 국외 한국어 교육이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공교육의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교육부, 2021).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체계에서 제1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2016년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 처음 공교육에 포함된 이후, 2021년에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 과목으로 단기간에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과정 체계 하에서 제1외국어로의 승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에 연속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히 제1외국어로서 위상을 갖게 된 한국어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서도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취미나 방과 후 수업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안에서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많은 국가에서 시범 교육 혹은 방과 후 수업 형태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해당 국가에서 정규 교과로서 외국어의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의 승격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은 베트남보다 먼저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교과로 채택되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지역적, 상황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타국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이라 불리는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상속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태국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자, 정상 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 총리가 한국어 교원 파견을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Parit Yinsen, 2011: 222). 따라서 ‘제1외국어로서 한국어’ 혹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갖는 국가, 대상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 사업과 보급 정책이 시급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태국보다는 베트남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외국어 정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어의 제1외국어 승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다양한 층위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초·중등학교를 대상

으로 한 한국어 보급 정책의 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국외 초·중·고 한국어 교육 현황과 의의

1. 국외 초·중·고 한국어 교육 현황

교육부의 '2020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에 따르면,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554개교), 미국(171개교), 태국(165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은 1997년에 한국어가 SAT II의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정규 학교 교육의 체계에 한국어 교육이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미국의 현지 학교 내 한국어 반이 처음으로 개설된 유서 깊은 국가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분포된 곳이다. 인접 국가라는 지리적인 특성과 더불어 재외동포 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많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인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서 초창기 한국어 교육은 이 두 국가를 포함하여 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한국어는 '상속어로서 한국어'의 성격을 가졌으며, 재외동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체성 신장을 목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CIS 지역의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주로 실시되었던 2000년대 초반을 지나, 한류 열풍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의 상승으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커지면서 새로운 성격의 한국어 교육이 등장하였다(민경모·김선정, 2010). 2008년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태국이 대표적인 사

레이다. 태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고, 2008년 2학기부터 송클라 대학의 한국어과 교수들에 의해 인근의 Benchamarachutit 학교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과목이 제2외국어로 개설되었다. 이후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2011년부터 한국어 교원 파견 사업이 시작되면서 중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공평 소파(2019: 622)에 따르면 태국의 정규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은 방과 후 특별 과정이나 정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2018년 1학기 기준, 태국의 고등학생은 한국어를 정규 필수 과목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선택 과목으로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수경, 2021: 214). 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정규 교과에 새롭게 포함된 국가는 인도이다. 2020년 인도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되면서 학령기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2019년 인도 중등 교육과정 내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한국문화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들과 함께 한국어 취미 수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7월 인도 정부가 새 교육 정책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권장 과목에 새롭게 편입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로 인해 시범 교육의 연장으로 실시된 한국어 교육은 정규 과정을 포함한 총 17개 학교로 확대되었다(주인도 한국문화원, 2021).

정규 교과에 포함되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방과 후 수업과 같은 비정규 교과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에서는 일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지 대학의 한국어학과나 대사관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호정·정연희·김가람·골로바노브 키릴·안혜인, 2020 ㄴ). 이밖에도 프랑스의 대학 입학 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 한국어가 포함되었으며, 전통적인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도 매년 자체적으로 방한 연수단을 구성하여 한국에서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처럼 국외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초창기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서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으로 확장되었고, 제1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라는 정규 교과 내에서 지위를 얻은 국가에서부터 시범 교과로서 비정규 수업이 이루어지는 국가까지 다양하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학교 내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학교 밖의 한글 학교나 세종학당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존재한다.

2. 국외 초·중·고 한국어 교육의 의의

세계가 이웃처럼 가까워지고 경제·문화적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면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서 다양한 언어 능력이 널리 지목되면서(권오현, 2019: 156) 다언어주의를 표방한 외국어 교육이 유럽 연합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어 외에 다양한 외국어를 교육과정 내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면서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어가 정규 교과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노력과 한류로 인한 한국어의 인기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김호정·신필여·강남옥, 2020 ㉒: 55-56). 교육부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국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지원 사업에 매진하는 까닭은 어떤 외국어가 그 국가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중·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접한 외국어가 대학 진학 후의 외국어 선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진정란, 2012: 236). 이러한 관점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다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과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

한파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김선정·곽지영·민경모·박성태·허용, 2018: 2). 무엇보다 학령기 학습자들이 공교육의 체계 안에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은 물론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학과 개설, 세종학당 설치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박진옥·이수미·장미정, 2018: 28).

이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의 노력은 비단 한국 정부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제교류기금’¹⁾이라는 단체를 통해 전 세계의 일본어 교육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수행하며, 이 단체의 지원을 통해 국외 초·중·고에서 일본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교류기금 서울 센터가 ‘중등학교 일본어 교사 집중 연수’, ‘각 지역의 일본어 교사 연수에 전문가 파견’, ‘한국인 일본어 교사의 일본 연수’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에서의 일본어는 제2외국어 과목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21)의 ‘고등학교 제2외국어 편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등학교의 80.9%인 259개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 과목을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247개교가 개설한 중국어보다 많은 숫자이며, 프랑스어(30개교), 독일어(15개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급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차세대 한국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관점에서 국외 학령기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보급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국외 일본어 보급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양민철·김해진(2018)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III. 베트남의 한국어 채택 배경과 과정

1.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베트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1980년대에는 러시아어와 중국어를 주된 외국어로 지정하여 가르쳤으나, 2008년 세계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영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베트남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20 외국어교육전략>을 수립·공포하면서 영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0 외국어교육전략>은 표준 외국어 등급 체계의 틀을 읽기·쓰기·듣기·말하기로 규정하고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의 등급 체계에 근거하여 외국어 능력 기준을 6단계로 제시하였다(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08). CEFR의 체계에 근거하여 A1은 1급, A2는 2급에 해당하여, 각 등급별 성취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영역별로 달성해야 할 성취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등급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과정 등급 체계(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08)

분류		성취 기준
초급	1급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표현 및 어휘를 이해하며 사용한다. • 자기소개 및 타인 소개하며 본인, 친구, 가족이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 화자가 천천히 또렷하게 말하면 대화하며 필요 시 도움을 줄 수 있다.
	2급	기본 대화에서 보편적 어휘 및 표현을 사용한다. • 매일 접한 익숙한 주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 본인, 생활환경, 생활 필수 요구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한다.
중급	3급	학교, 업무, 오락 등에 관한 보편적 주제에 대한 글, 문단의 핵심내용을 이해한다. • 이상의 주제에 관한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하다. • 경험, 사건, 꿈, 희망에 대해 묘사하며 본인의 계획을 간단하게 서술하며 설명한다.
	4급	세부적이면서 추상적인 복잡한 글이나 본인의 전문 분야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 현지인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 다양 주제로 글을 작성할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냐 해당 문제의 장단점을 밝힐 능력이 있다.

고급	5급	넓은 범위의 긴 글의 함축된 내용을 이해한다. • 일반적인 구사 능력으로 유창하게 의사소통한다. • 사회적, 학술적, 전문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 복잡한 주제의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연결어미나 연결 단어를 잘 사용한다.
	6급	문어, 구어의 내용을 대부분 쉽게 이해한다. • 정보 요약, 정리를 하며 알고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매우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하며 복잡한 상황에서의 미미한 의미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에 근거하여 베트남의 초·중등교육에서 시행하는 모든 외국어 교육과정은 위 등급 체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교과서와 보조 자료를 설계할 때에도 위 체계에 근거해야 한다.

이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이전의 내용을 보완하여 <2025 외국어교육전략(Thủ tướng Chính phủ, 2017)>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롭게 설정된 <2025 외국어교육전략>은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 사용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추진 목표로 설정되어, 각급 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지혜·김호정, 2019: 747). 현재 영어는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와 함께 제1외국어 선택 과목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선택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정책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초·중·고에서 한국어 교육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언어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제1외국어로서 한국어 채택 과정

베트남에서는 2016년부터 일부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시범 교육을 시작하였다. <2020 외국어교육전략>에 근거하여 시범

교과에 포함된 한국어는 7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임시 절차로서, 한국어가 처음으로 베트남의 초·중·고 공교육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 2019년에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정규 교과로 격상되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제2외국어 시범 교과에서 정규 교과로 격상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결국 제1외국어 정규 교과로서 한국어가 채택되었다. 통상 제2외국어에서 제1외국어로 승격되는 데는 10년가량 소요되지만, 한국어는 불과 1년여 만에 제1외국어로 올라섰다. 이상의 채택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과의 채택 과정

시기	2016년	2019년	2021년
위상	제2외국어 시범 교과	제2외국어 정규 교과	제1외국어 정규 교과
근거	국무총리결정문 (Thủ tướng Chính phủ, 2008)	⇒ 교육훈련부 결정문 (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18)	⇒ 교육훈련부 결정문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2021)
내용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서 한국어 채택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서 한국어에서 정규 교과로 격상	제1외국어 정규 교과로서 한국어 채택을 승인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됨에 따라 제1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전국 6개 중·고교가 한국어 시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1,500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제1외국어로 승격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베트남 내에서 확산된 한국어 학습 열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베트남은 2021년 기준으로 15개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세종학당 외에도 학원을 비롯한 비정규 한국어 교육 시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2년 2,965명에서 2019년에는 28,253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한류 확산과 더불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8천여 개에 달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나서 형성된 상향식 여론에 힘입어 제2외국어 채택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1년 2월 한국어를 영어와 같은 제1외국어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와 같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양적 성장이 제1외국어로의 채택을 추동한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가 충분히 배출되었다는 점이다. 베트남 한국학술연구학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현재 정규 한국어 학습자만 16,0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하노이 국립외국어대에 2018년 한국어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호찌민 국립외국어대와 국립 인문사회대가 한국학 석사과정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에 처음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이래 약 25년 동안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학부 과정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학위를 받은 후에 베트남으로 돌아와 모교 혹은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과의 교수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많은 대학의 한국어 과에는 베트남인 한국어 교수가 포진되어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학부를 베트남에서 마친 후에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사례이다. 이들이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로서 교육과 행정,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면서 초·중·고 한국어 교육 시행에 주춧돌이 되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교육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현지인 전문가가 충분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한국어 교육이 제1외국어로 채택되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3.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황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2021년 2월 9일 제1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와 독일어를 선정하였다(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2021). 결정문에 따르면, 제1외국어는 필수 과목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제1외국어로 선정된 한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총 이수 시간은 1,155단위이고, 단위당 수업 시간은 45분이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간 420단위,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 3년간 420단위, 마지막 고등학교인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3년간 315단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편제 하에서 달성해야 할 성취 기준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의 A1, A2, B1에 해당하는 1급, 2급, 3급으로 결정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베트남의 제1외국어 교육 편제

기간	3-6학년(초)	7-9학년(중)	10-12학년(고)
성취 기준	1급	2급	3급
주당 시수	4시간	3시간	3시간
총 이수 시수	420시간	420시간	315시간

이러한 체계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의 7개 제1외국어 과목 중에서 학습자들이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운다. 제2외국어는 제1외국어와 달리 중학교에 해당하는 6학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가 중복된다. 즉 제1외국어를 7개 언어 중에서 고르고, 나머지 6개 중에서 제2외국어를 고르게 된다. 대부분의 베트남 학생들은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영어 외에 나머지 6개 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당국은 일상생활, 학교, 환경·자연, 사회·

문화 등 4가지 범위의 필수내용과 이에 속한 소주제를 구분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칠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3급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 공교육의 성취 수준을 B1으로 설정한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김호정 외, 2020ㄴ)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도 졸업 요건을 TOPIK 4급-5급 수준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중·고 교육의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체계에 근거하여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의 시범학교는 8개 학교, 20개 학급이다. 2018년 기준으로 총 642명이 한국어를 공부하였으며, 중학생이 190명, 고등학생이 452명이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한 학교 현황(김호정·권오현·윤여탁·김지혜·연소민·김여진, 2019: 35)

지역	학교 명	학년	학급 수(개)	학생 수(명)
하노이	Thăng Long 중학교	6	1	55
		7	1	55
	Ngô Gia Tự 중학교	6	1	55
		7	1	55
	Việt Đức 고등학교	10	1	45
	Ngô Gia Thiệu 고등학교	10	1	45
호찌민	Bình Thọ 중학교	6	1	39
	Hoa Lư 중학교	6	1	41
	Bùi Thị Xuân 고등학교	10	6	177
	Thủ Đức 고등학교	10	6	185
소계			20	642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시범 도입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베트남 학생들은 대부분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 전문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어 역시 제1외국어로 채택된 만큼 실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찌민한국교육원은 2019년 『베트남 중학생을 위한 한국어 익힘책 6』(이하 『익힘책 6』)을 발간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해 배우고 있는 중학교에 배포하였다. 2016년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중학교 4개교(하노이시 및 호찌민시 각 2개교)를 지정,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시범 운영하였는데, 당시 시범 학교에서는 『세종한국어 1』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세종한국어 1』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인 만큼 중등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2017-2018년도부터는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한국어 6』을 사용해 왔다. 이 교재는 본 교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의 개인 학습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찌민한국교육원은 본 교재의 보조 교재로 학습자들의 연습 및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익힘책 6』을 개발하였다.



〈그림 1〉 『베트남 중학생을 위한 한국어 익힘책 6, 7』 표지

이 교재의 개발은 현지인 한국어과 교수가 책임 집필을 맡았고, 2명의 현지인 한국어과 교수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현지인 전문가 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의 파견으로 근무 중인 한국인 교사 2명이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감수를 맡아 현지인 전문가와 현지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전문가 그리고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협력하여 전문성과 실용성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후 2019년 8월에는 『익힘책 7』, 2020년 6월에는 『익힘책 8』을 후속 편찬하였다. 『익힘책 7』과 『익힘책 8』은 『익힘책 6』의 후속으로 베트남 중학생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일 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복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워크북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호찌민한국교육원의 지원으로 학습자용 익힘책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한글날 행사와 같은 특별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김호정 외, 2019). 수업 외 특별 활동은 해당 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매력을 이끄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특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베트남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한국어 채택 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특성 가운데 타 국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은 개별 국가의 한국어 교육 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한국인 전문가와 현지인 전문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단계별 맞춤형 지원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정규 교과와 제1외국어로 채택된 것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다. 2016년 시범 교과로서 7년을 계약 기간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2019년 제2외국어 정규 교과로 승격된 이후, 2021년 제1외국어로 격상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제2외국어 시범 교과-제2외국어-제1외국어’로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사례처럼 많은 국가에서 정규 외국어 교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별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북방 지역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구한 김호정 외(2020)은 신북방 지역의 13개 국가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잠재적 성장기’, ‘도입·적용기’, ‘도입·성장기’, ‘지속적 성장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공교육의 영역에서 아무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학이나 세종학당 등 외부 기관에서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몰도바, 조지아 등의 국가는 ‘잠재적 성장기’, 비정규 교과로서 방과 후 수업의 형태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도입·적용기’, 정규 교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도입·성장기’, 마지막으로 ‘지속적 성장기’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재가 개발되었으며,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과목이 포함된 국가를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어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밖 교육에서 시작하여 저변을 확장한 후에 시범 교과를 거쳐 정규 과목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거친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2016년 처음으로 제2외국어 시범 교과로 선정된 직후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 6』을 전용 교재로 개발하였고, 2018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9년 한국어는 제2외국어 정규 교과로 격상될 수 있었고, 이후 본 교재만으로 구성된 교재의 학습 지원을 위해 호찌민한국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익힘책 6-9』를 개

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제1외국어 교과로서 한국어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결국 베트남의 한국어 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을 적기에 실시하여, 제1외국어 과목으로서 위상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교육의 보급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발달 단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교육 지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그리고 교재 및 부교재 선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은 총론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성취 기준과 등급 등의 세부 내용은 개별 학교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도 정부가 개발한 국정 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교육 정책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현지인 전문가와 협력 강화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승격된 이후, 베트남의 교육훈련부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때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는 베트남인 한국어 교육 전문가였다. 하노이 국립외대 한국어문화학부의 현지인 교수진이 주축이 되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이후 6학년에서부터 사용할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정에서도 하노이 국립외대 외에 하노이 대학교, 하노이 국립인사대의 현지인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개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습자의 자습을 위해 개발된 『익힘책』의 경우 호찌민한국교육원이 기획을 맡고, 베트남 현지인 전문가 3인, 국내 한국인 전문가 1인, 베트남에 파견된 한

국어 교사 2인 등 총 6인이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의 보급과 채택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지인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저에는 ‘베트남한국학술연구학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학회는 한국학 연구, 보급 및 교육 분야를 위해 베트남인 전문가들의 결성한 것으로 베트남인 교수와 박사들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 내 한국 연구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전 티 호영, 2020: 214). 이들은 한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현지인 전문가만 가능한 일로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국 전문성을 갖춘 현지인 전문가 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한국어는 단기간에 제1외국어로 승격될 수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별 국가가 표방하는 교육 철학이 있으며, 이는 현지의 교수 맥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교육을 실천한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교육의 성장을 위해서 현지인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몽골의 초·중·고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연구한 알타이·김가람(2020)은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정 발전을 위해서 몽골인 전문가의 양성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김지혜·김호정(2019)도 현지인 전문가 양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현지인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때, 해당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 혹은 국내에서 파견된 한국인 교원이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현지인 전문가와 협력하여 해당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성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단기간에 제2외국어 시범 교과에서 정규 제1외국어로 채택된 것은 오래 전부터 한국어 교육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고, 현재 15개에 이르는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거나 한국 유학 이후 한국어 교육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세종학당의 학습자들은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를 활성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베트남 내에 설치된 14개 세종학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성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2021년에 이르러 제1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 열기를 고조시킨 후에 자연스럽게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해외 대학의 한국어과는 대사관과 연계하여 현지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한국어 관련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왕립프놈펜대학과 대사관이 연계하여 말하기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타지키스탄도 타지키스탄국립사범대의 한국어과와 대사관이 협력하여 한국 영화제, 태권도 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한국어과는 현지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축된 체계가 자연스럽게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선정(2019)에서도 해외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채택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지 대학을 먼저 활성화한 후 초·중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각국의 핵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한국어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육성한다면, 대학의 구성원들이 초·중등학교 정규 교과로서 채택 과정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초·중등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 후에는 교사로 취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대학을 먼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원어민 교사를 파견하거나(국제교류재단),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통한 한국어 연수 및 고등교육(국립국제교육원), 장학금 지원(기업 및 현지 한인회)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채택을 기대하기보다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토대를 구축한 후에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의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된 한국어의 위상과 교육 현황을 검토하여,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2016년 제2외국어 시범 교과에서 2019년 제2외국어 정규 교과를 거쳐 2021년 정규 제1외국어 교과로 격상된 한국어 채택 과정을 통해 해당 국가별 한국어의 위상과 교육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베트남은 시범 교육 단계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제2외국어로 승격된 이후에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정규 교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해 자가 학습용

부교재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을 도왔다. 이처럼 시범 교육, 제2외국어 정규 과목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호찌민한국교육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단기간에 제1외국어 과목으로 격상될 수 있었다. 둘째 국내의 한국어 전문가 외에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현지화가 가능함을 제언하였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개발한 교재와 교육과정에 대해 현지인 전문가들이 검토 역할만 하는 사례가 많은데, 베트남의 사례처럼 준비 단계에서부터 현지인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지의 교수 맥락에 부합하는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와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초·중등 교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성인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몰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종학당이라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는 학령기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베트남은 단기간에 한국어가 초·중·고 외국어교육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되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근거한 한국어 교재와 부교재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타 국가에서 한국어가 정규 외국어 교과로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적용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 한국어 교육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1. 4. 30. 투고되었으며, 2021. 5. 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 6.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공평 소파(2019), 「태국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한국어수업 사례 분석」, 『문화와 융합』 41(2), 615-650.
- 교육부(2021.3.15.),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 발표-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보도자료, 검색일자 2021. 4. 20., 사이트 주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792&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권오현(2019), 「독일 학교 외국어교육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적 함의 분석-헤센(Hessen)주를 중심으로」, 『교육발전』 39(2), 155-182.
- 김선정(2019), 「해외 정규교육기관을 통한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한국교육원장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문화연구』 25(6), 303-327.
- 김선정·곽지영·민경모·박성태·허용(2018),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 발전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김지혜·김호정(2019), 「베트남 중등 외국어 교육 정책과 한국어교육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5(4), 745-770.
- 김호정·권오현·윤여탁·김지혜·연소민·김여진(2019), 『신남방 지역 제2외국어 정책 및 한국어 보급 현황 분석(교육부 위탁운영 2018-04)』, 서울: 교육부.
- 김호정·신필영·강남옥(2020-),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원리」, 『국어교육학연구』 55(4), 45-78.
- 김호정·정연희·김가람·콜로바노브 키릴·안헤인(2020-), 『신북방 대상 국가의 외국어교육 정책과 한국어교육과정 채택·운영 현황 분석(교육부 위탁운영 2020)』, 세종: 교육부.
- 류수경(2021),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에 기반한 해외 중등학교 과제 중심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의사소통 과제 활동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80, 209-245.
- 민경모·김선정(2010), 「해외 초 중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적 연구」, 『언어와 문화』 6(3), 135-161.
- 박진옥·이수미·장미정(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 적용 연구-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9(1), 25-52.
- 서울특별시교육청(2021), 『2021 서울 제2외국어교육 내실화 추진 계획』,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알타이·김가람(2020), 「몽골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23번 학교’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0(2), 263-290.
- 양민철·김혜진(2018), 「일본의 일본어 보급 정책에 대하여-국내의 일본어 보급을 위한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12(1), 56-77.
- 주인도 한국문화원(2020. 6. 2.), 보도자료, 검색일자 2021. 4. 30., 사이트 주소 <https://india.korean-culture.org/ko/1271/board/127/read/102915>.

- 진정란(2012), 「태국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8(2), 235-257.
- 쩨티호영(2020), 「베트남의 한국학 및 한국어교육 관련 동향-하노이 국립대학교 외국어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9, 213-235.
- Parit Yinsen (2011),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1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19-229.
- 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08), Đề án Dạy và học Ngoại ngữ trong hệ thống giáo dục quốc dân giai đoạn 2008-2020,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Việt Nam, 검색일자 2021. 4. 22., 사이트 주소 <https://thuvienphapluat.vn/van-ban/Giao-duc/Quyet-dinh-1400-QD-TTg-phe-duyet-de-an-day-va-hoc-ngoai-ngu-trong-he-thong-giao-duc-quoc-dan-giai-doan-2008-2020-71152.aspx>.
- Ban Quản lý Đề án Ngoại ngữ 2020 (2018), Đề án Dạy và học Ngoại ngữ trong hệ thống giáo dục quốc dân giai đoạn 2008-2020,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Việt Nam, 검색일자 2021. 4. 22., 사이트 주소 <https://thuvienphapluat.vn/van-ban/Giao-duc/Thong-tu-32-2018-TT-BGDDT-Chuong-trinh-giao-duc-pho-thong-403454.aspx>.
- Bộ trưở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 (2021), Quyết định ban hành chương trình giáo dục phổ thông môn tiếng Hàn và tiếng, 검색일자 2021. 4. 22., 사이트 주소 <https://thuvienphapluat.vn/van-ban/Giao-duc/Quyet-dinh-712-QD-BGDDT-2021-Chuong-trinh-giao-duc-mon-Tieng-Han-Ngoai-ngu-1-nam-thi-diem-466092.aspx>.
- Thủ tướng Chính phủ (2008), Quyết định về việc phê duyệt Đề án “Dạy và học ngoại ngữ trong hệ thống giáo dục quốc dân giai đoạn 2008-2020”, Văn phòng Chính phủ Việt Nam, 검색일자 2021. 3. 31., 사이트 주소 http://www.bentre.edu.vn/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62:-an-qdy-va-hc-ngoai-ng-trong-h-thng-giao-dc-quc-dan-giai-on-2008-2020q&catid=233:cac-k-hoch-an-gdtrh&Itemid=73.
- Thủ tướng Chính phủ (2017), Quyết định Phê duyệt điều chỉnh, bổ sung Đề án dạy và học ngoại ngữ trong hệ thống giáo dục quốc dân giai đoạn 2017-2025, Cổng thông tin điện tử Chính phủ, Văn phòng Chính phủ Việt Nam, 검색일자 2021. 3. 31., 사이트 주소 <https://thuvienphapluat.vn/van-ban/Giao-duc/Quyet-dinh-2080-QD-TTg-2017-bo-sung-De-an-day-hoc-ngoai-ngu-trong-he-thong-giao-duc-quoc-dan-370658.aspx>.

베트남의 제1외국어 과목으로서 한국어 채택의 정책적 함의

김가람

이 연구는 베트남의 초·중·고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제1외국어로 채택된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채택 배경과 채택 과정을 탐구하여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외국어 교육 정책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제1 외국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과정을 고찰하여 타 국가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해당 국가별 한국어의 위상과 교육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의 한국인 전문가 외에 현지인 한국어 전문가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한 성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한 후에 초·중등 교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어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제1외국어, 한국어 채택, 단계별 지원, 현지인 전문가, 대학 교육 활성화

ABSTRACT

Implications of Vietnam's Adoption of Korean as a First Foreign Language in Public Education

Kim Garam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it was adopted as a first language in Vietnam'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urricula. Further, it explores its background and adoption process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for overseas Korean language distribution projects. To this end,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curriculum of Vietnam's Ministry of Education were analyz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were derived by considering the. First, phased support is needed for the status of in each country, as well as the educational stage. Second, in addition to native Korean experts in Korea, cooperation with local Korean language expert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a sequential approach is needed to promot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adult learners, centered on local universities' Korean language departments, before being spread to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KEYWORDS Korean Education, First Foreign Language, Korean Adoption, Phased support, Local Expert, Activation of Korean Education at University